

<차관 동정>

## 김정렬 차관, 파푸아뉴기니와의 협력의 문을 열다 국가기획부 차관 면담...문대통령 방문 후속 인프라협력 강화방안 논의

-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30일(금) 서울에서 파푸아뉴기니 국가기획부 코니 사무엘(Koney Samuel) 차관을 만나 양국의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  -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 파푸아뉴기니 정부에서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, 이번 면담은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성사되었다.
  - 이번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, 향후 파푸아뉴기니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.
- 파푸아뉴기니는 아시아와 북미권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, 아시아·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외교적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이다.
  - 파푸아뉴기니는 최근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성장과 교류의 가능성이 높다.
- 파푸아뉴기니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우리나라의 도로 인프라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,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  - 이에, 김정렬 차관은 구체적인 의제 발굴을 제안하며 글로벌인프라 펀드(GICC) 등을 소개하고,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최근 설립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협력분야 논의를 진전하자고 제안했다.
- 김정렬 차관은 “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국가발전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상생번영이 가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18년 11월 30일  
국토교통부 대변인